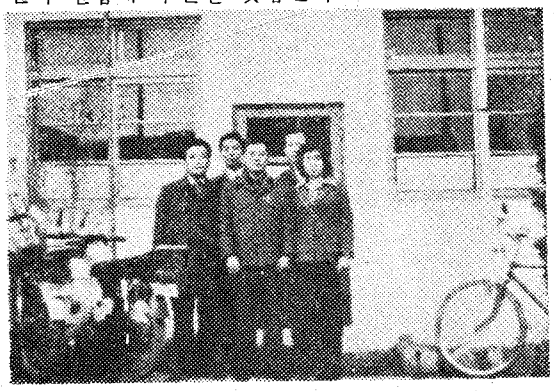
포천분회를 찾아서!

이번호에는 공동구입, 공동출하를 사업목표로 삼고 양동환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함께 계획하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본 협회 포천분회를 찾아서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합하여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필자주〉

정 영 교
〈편 집 부〉

산뜻한 단층 스라브건물의 앞벽에 본 협회와 똑같은 포천분회 간판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현관 앞에는 포천분회라는 번호판을 단 두대의 오토바이와 한대의 자전거가 그 기동력을 과시하는 듯 현관 좌우에 세워져 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마치 10여년전의 재건복을 연상케하는 짙은 국방색의 검소한 단체복으로 말끔히 차려입은 양동환 분회장과 회원들이 반갑게 두손을 맞잡는다.



〈현관앞에서 함께〉

▨ 친목을 위한 모임이 점차 발전하여 ▨

분회를 설립하기까지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양분회장은 「67년경부터 이 지역에서 부로일러를 사육하기 시작하였는데, 점차 사육자가 불어나자 74년 2월경에 같은 업자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지요.」하면서 구수한 음성으로 시원스럽게 설립동기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또 이 지역은 길이가 약 40km나 되는 넓은 면적을 가졌지만 단일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을 상대로한 생산물의 출하 및 모든 구입이 모두 이 도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되므로 숙명적인 공동운명체라는 것이 모임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 한다.

이렇게하여 시작된 모임이 점차 발전하여 사양관리상의 제반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문제까지 의논하는 유일한 정보교환장소로 진전하게 되자 이제는 친목단체가 아닌 합법적인 단체로서 사육자를 위한 체계잡힌 지원이 아쉬워지게 되어서 고심하던중, 감별사인 김 수동씨가 양계협회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어서 대한양계협회 포천분회로 일할 것을 작정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이렇게 하여 74년 11월 5일 분회로 정

식 발족을 하고, 11월 30일에 현재의 재향군인회 포천분회 건물을 빌려 12명의 회원에 6만수 규모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군납 및 공장직거래로 유리한 경영 ▨

지난 불황을 무사히 넘긴 비결을 묻자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생산물을 군납하였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구입품을 공장직거래로 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타지역보다 유리한 경영을 하였다고 보겠읍니다.」 또 영세사육자가 담보가 없어 공장직거래가 곤란할 때에는 분회에서 보증을서주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든 정보에 둔감한 회원들에게 정보제공 및 상인들과 긴밀한 연락으로 비회원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히 생산물을 출하시켜 주자 분회활동에 대하여 방관하던 사육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육자가 늘어나게 되어 현재에는 정회원 36명에 이르고 있단다.

▨ 공동구입, 공동출하의 유통체계 확립 ▨

분회에서는 회원들의 병아리구입 신청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신용받고 있는 약 4개의 부화장과 연락을 취해서 가장 유리한 부화장을 선택하여 병아리를 구입하였으므로 가격, 품종, 신용 등 여러면에서 유리하였고, 만약 구입에 차질이 생겨서 부족될 때에는 소군 사육자 우선으로 분양하는 세심한 신경을 쓴단다. 사료구입은 대개 5개회사를 상대로 하여 성수기 때에는 월 300톤가량 소비시키고 있는데, kg당 3원씩 싸게 구입한다해도 90만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약품도 월 40만원치정도 소비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약 10만원 이상의 원가절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산물의 출하문제도 월례회때 작성한 계획표의 순서대로 실시하여 서울 본회와 각 생계상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가장 유리한 생계상에 출하하도록 유도하며, 오토바이상인은 출하시간이 길어서 스트레스나 관리상의 여러가지문제가 불리하므로 주로 대상들을 상대하고 있다. 또 사전협조 없이 온 생계업자에게도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참작하여 그냥 돌려보냄이 없이 내일 육계가격의 상승이 예견된다해도 회생출하를 하면서 신용을 지켰다 한다.

▨ 양계장이 분산되어 방역에 유리 ▨

그동안 질병으로 타격받은 회원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이지역은 도시근교와는 달리 마을이 분산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육자들이 2km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방역에 유리한 점이 많지요.」 하면서 회원 모두가 사양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리고 있으며, 분회로부터 인근지역이나 다른 회원의 전염병 감염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방역 및 치료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다행히 질병으로 고생한 기억이 없단다.

▨ 월례회에서 한달 계획 및 정보교환 ▨

매월 한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앞으로 한달동안의 구입 및 출하계획을 작성 제출하며, 사양관리 및 질병대책을 서로 묻고 의논하여 기술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매월 모여서 서로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자기의 결점을 보완하고 다른 회원의 장점을 배울뿐만아니라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새로운 사양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여, 이제는 모든 면에서 평준화되기에 이르렀다 한다. 이렇게 하여도 모자라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배우려고 분회에 나오는 회원이 하루에 6~7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 열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지난 3월 퓨리나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사양관리 및 사료효율에 관하여 세미나를 가졌고, 9월에 본 회에서 질병 및 방위세부과문제를 가지고 강습회를 실시했으며, 10월 27일에는 유한양행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질병 및 사양관리에 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한다. 참석자 모두가 똑같은 제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수강하는 모습을 보고 강사들은 자기의 지식을 한가지라도 더 전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부로일러 체계잡히면 채란계 취급

채란계도 취급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채란계는 알값의 변동폭이 크지않아 현재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부로일러의 체계가 확립되면 채란계도 취급할 계획에 있읍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에는 채란계 사육자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할 수 없는 처지이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리라 전망한단다.

회원중에도 채란계 사육자가 몇 사람 있으나 구입에만 도움을 줄 뿐 출하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채란계를 사육하는 회원이 불어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부로일러의 유통체계가 확립되는대로 채란계를 취급하게 되면 채란계 사육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단다.

긴축재정으로 방위성금 기탁

분회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질문에 「매달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육수수가 많은 회원이 수수가 작은 회원의 6배를 납부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평준화되어 3,000원으로 되었읍니다.」 하면서 이렇게 징수된 10여만원으로 유급여사원의 급료와 기타 경상비로 쓰고 부족되면 월례회때 추가징수를 하여 그달 그달 완결지운다 했다. 예비비로 적립하는 돈은 없느냐고 묻자 「어떤사업이든 예비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문제로 비영리단체인 분회의 이미지가 흐려지게될까 염려되어 현재에는 적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번에 회비가 남아서 조금 더 보태어 방위성금으로 기탁했지요.」한다.

또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각 업자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8일 사료업계, 부화업계, 약품업계, 생계업자 대표, 각 기관장 등 각계 인사들과 영중면 금주리에 있는 백로주유원지에 부부동반 야유회를 갔었다며 앞으로도 일년에 한두번씩 가기로 결정했단다.

사육자 위한 업체 되어야

각계에 바라는 사항을 말해달라는 필자의 질문에 「각 축산업체는 사육자가 살아야 자기 업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육자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정부는 65년부터 미루어 왔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니 좀더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으로 성공리에 시행되기를 바랍니다.」하면서 얘기를 끝마친다.

다음은 분회원 명단과 사육규모를 소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직 위	성 명	사업규모 현재보유수
고 문	원상희	50,000 / 27,000
〃	전영기	
회 장	양동환	15,000 / 7,800
지도위원	박기복	가축병원
감 사	원용준	10,000 / 5,000
〃	배완근	13,000 / 3,500
간 사	오창권	8,000 / 1,000
〃	오병래	4,000 / 1,000
〃	임성진	20,000 / 10,500
회 원	이성묵	8,000 / 4,000
〃	김태호	15,000 / 4,500
〃	양 선	10,000 / 6,000
〃	김만호	8,000 / 5,000
〃	김훈상	6,000 / 2,800
〃	원용식	산 란
〃	박복록	10,000 / 3,700
〃	이기완	8,000 / 1,700
〃	임영근	6,000 / 1,000
〃	유창만	10,000 / 4,000
〃	전학열	8,000 / 2,500
〃	변혜선	4,000 / 2,500
〃	김봉길	10,000 / 4,500
〃	박윤형	6,000 / 2,000
〃	이중남	6,000 / 2,000
〃	이동만	10,000 / 3,500
〃	권병찬	4,000 / 1,500
〃	홍종현	산 란
〃	원승재	6,000 / 2,500
〃	장원석	10,000 / 400
〃	배삼남	8,000 / 1,000
〃	김영길	6,000 / 3,400
〃	오영곤	6,000 / 2,000
〃	김영일	15,000 / 4,000
〃	정 현	산 란
〃	김창옥	생 계
〃	이규문	부 화
계	36명	308,000 / 120,300

※ 위의 현재보유수수는 11월 18일 기준임.